

배포일시	2021. 11. 2. (화) 10:00 (총 3매)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청주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	담당자	과장 김진석 주무관 서유미
		전화번호	043-901-7036

## 신 기후평년값으로 알아보는 충청북도 기후변화

- 「신(新) 기후평년값(1991~2020년) 충청북도 기후특성집」 발간 -

- 청주기상지청(지청장 김동진)은 올해 새롭게 산출된 기후평년값<sup>1)</sup>을 반영한 「신 기후평년값(1991~2020년) 충청북도 기후특성집」을 발간하였다.
  - 이 기후특성집은 충청북도<sup>2)</sup>의 연·계절·월별 기온 및 강수량, 바람 등 기상요소에 대한 기후평년값과 기후변화, 그림으로 보는 충북의 기후특성, 서리·얼음·봄꽃 개화 등 계절관측, 눈·서리·안개일수 등 현상일수를 수록하였다.
  - 또한, 충청북도 11개 시·군별 기상요소의 기후평년값과 기후변화, 폭염·호우·가뭄 등 최근 10년간 충북의 이상기후와 피해 현황을 사례별로 분석하였다.
- (연 평균기온) 충북의 연 평균기온은 11.6℃로 이전 기후평년값(1981~2010년)보다 0.3℃ 증가하였다. 10년 연대별 기온도 꾸준히 상승하여 2010년대 평균기온은 11.9℃로 1980년대보다 0.8℃ 높았다.

1) 기후평년값은 세계기상기구(WMO)의 기준에 따라 0으로 끝나는 해의 최근 30년 동안 기상요소에 대한 평균값을 10년 주기로 산출함. 올해 산출된 신 기후평년값은 1991~2020년 평균값임

2) 충주, 청주, 추풍령, 제천, 보은 다섯 지점의 평균값

- (월별 평균기온) 12월을 제외하고 0.1~0.6℃가 상승했으며, 1월에 0.6℃가 높아져 최한월의 기온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났다.
  - (연 강수량) 1261.3mm로 이전 기후평년값보다 3.5mm 감소하였으며, 연도별 경향성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. 한편, 6월과 7월 강수량은 감소, 8월은 증가하여 장마철 이후 강수량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.
  - (계절관측) 충주, 청주, 추풍령의 첫서리 관측일은 신 기후평년값이 2~4일 늦고, 마지막 서리 관측일은 3~9일 빨라졌으며, 청주 지역의 매화·개나리·벚꽃 등 봄꽃 개화는 신 기후평년값이 1~5일 빨라졌다.
- 이번 기후특성집은 충청북도 및 유관기관에 배부될 예정이며, 청주 기상지청 누리집([cheongju.kma.go.kr](http://cheongju.kma.go.kr))에서 자료 내려 받기가 가능하다.
- 기후평년값은 폭염·홍수·가뭄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, 위험기상 시 방재업무 의사결정, 기후변화 적응 및 취약성 평가 정책 수립, 에너지 공급 관리, 농작물 관리 등 기후변화를 반영한 기준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.
- 김동진 청주기상지청장은 “기후위기 시대에 기후평년값은 충북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후의 기준값이 됩니다. 앞으로 이 기후특성집이 충북의 기후를 이해하고,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 하는데 많은 활용이 되기를 바랍니다.”라고 밝혔다.

※ 붙임 「신 기후평년값(1991~2020년) 충청북도 기후특성집」 사진

발간등록번호

11-1360689-000019-01

# 충청북도 기후 특성집

신(新) 기후평년값(1991~2020년)

